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오늘 감사 찬양예배 “주의 지으신 모든 것과 성도들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94 비전 2000운동의 승전과 추수감사절, 교회설립 3주년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는 1991년 설립에 앞서 7주간을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50일이 되던 11월 24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논현동 빌딩의 의자도 없었던 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세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섬기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천국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 지나온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인 다음 주일에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감사의 축제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탁아부와 유치부 찬양대가 추수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진 것에서 출발하여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은 지난 10월 2일부터 ‘만민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고 성도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달려오던 '94 비전 2000운동의 50일 행진을 마치고 승전보고를 드리는 날이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승전감사예배와 아울러 '94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찬양예배로 드린다. 감사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대호 장로, 지휘: 박정선, 반

주: 조은주)가 프랑스 19세기 작곡가 구노의 <장엄한 예배> 전곡을 연주한다. (곡 해설 4면 참조)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감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을 가진다. 낮에는 떡잔치 순서와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 줄 것이다.

여러 주간에 걸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는 이 기간의 모든 일들을 행사 자체로만 그치지 말고 지난 시간들에 대한 회고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방향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설립 초부터 세우고 추진해 온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세 목표가 바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탁아부 찬양대와 유년부 찬양대가 오랫동안 준비한 추수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제 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10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내일(21일) 종강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제 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10번째 강의를 끝으로 종강한다. 9월 5일에 개강하여 <경건과 교양>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강해와 서양 고전들을 연구하였던 이번 학기는 목회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특강들을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진리 탐구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일은 1교시 로마서 강해와 2교시 특강

이 마친 후 수료식과 아울러 한남 CBMC(기독실업인회)에서 마련한 만찬으로 종강파티를 가질 예정이다.

그간 목회자 신학 세미나의 진행을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였고 이 일이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하도록 성도 전체가 공사간에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 내년 3월에 개강할 제 7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이전보다 더 내실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지도자를 위한 기도회

오늘, 오전 11시 고등부집회실에서

고등부에서는 오늘 11시에 4층 고등부집회실에서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과 오는 23일에 실시될 대학 수능시험을 앞둔 입시생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모임을 갖는다. 미래 세계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강과 지혜를 구하게 될 이 기도회에는 취업을 앞둔 학생, 입시생, 학부모와 기도 결연자, 그리고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창세기 강해



하나님의 친구

(18장 1절 ~ 8절)

이 중 운 목사

종이 주인의 칭함을 받는다면 감격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인의 상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그는 큰 영광으로 알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사 그의 상에 초대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 성경에 세번이나 나옵니다(대하 20:7, 약 2:3, 사41:8).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친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예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1)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세 수풀 근처에 나타난 하나님(1절)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사람이었으나 "내년 이맘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목소리는 한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교제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친구로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어른이 아이를 친구로 대해주었다고 해서 아이가 어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부로 행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은 달려가 땅에 몸을 굽히는 자세를 취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다.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그들을 향하여 심지어 '내 주여'라고까지 부르며 극진히 접대합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소외된 자, 천대받고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치부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냉수 한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 우리를 친구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서는 사귄(companionship)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왔고,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조카 롯도 자기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권능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친구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힘을 부어 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노셔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대화(communication)를 통해 우리와 친구관계를 이루십니다. 친구란 모름지기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항상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17절)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똥을 심판하려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동정심(compassion)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언약의 아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열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친구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다. 세상 친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3. 누가 나의 친구이며,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세상 친구는 변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매맞고 피흘려 죽으신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학자의 혀

제 자리에 바르게 박힌 못은 집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지만 박혀서는 안될 자리에 잘못 박힌 못은 남의 몸에 상처를 주고 출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이 된다.

전도자가 회중 가운데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비유한 것은 선생된 이들의 역할을 말해준 것이다(전12장). 학자의 혀는 본래 끈땀한 자를 돕고 감추어진 보화를 깨어나 인생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도록 지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오용되면 오히려 무고한 백성에게 무서운 저주와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학자가 혀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러나 진리만은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백성의 미래를 위하여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끈땀한 자를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 ~ 1920)는 칼 맑스, 에밀 뒤르켐과 함께 세계 3대 고전 사회사상가로 꼽힌다. 그는 사회학의 출발을 자본주의에 두고 있으며 근대 자본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그 기원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근대자본주의의 기원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문제가 베버 사회학의 출발점이었다면, 그것의 이론적 귀착점이자 중심주제는 '합리주의' 및 '합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하 <신교논문>)은 베버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근대 자본주의의 성격과 기원에 대한 학문적 도전이며 신정쇠약중에 걸려 있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나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당시 독일의 정치, 사회적 위기 상황에 던진 지적인 도전이었다. 그의 책은 1904~5년에 발표되면서부터 반향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찬반의 극단적 논쟁이 교차하고 있으며, 사회학자뿐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신학, 역사학, 철학 등 사회·인문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다차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번은 거쳐야 할 필수적 학습 과제로 정착해 있다.

<신교논문>은 크게 두개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초기 자본주의적 기업을 집단의 형성에는 물질적 이해관계 이외에 특정한 이념적 이해 관계도 작용했는 바,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정신'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1월 14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강사 / 전 성우 교수 (한양대)

② 이 '정신'의 형성에는 그 당시의 종교적 이념체계 중의 하나인 신교종파들, 특히 칼비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명제의 기반 위에서 베버는 세가지 이념형을 중심으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 ① 자본주의정신
- ② 현세적 금욕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 ③ 칼비니즘적 윤리관.

특별히 그의 저서에서는자본주의 정신의 내부에 뿌리 박힌 종교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는 행위규범의 틀을 구성하는 윤리관의 배후에 인간의 실존적 문제는 종교의 소관사항이라 믿었기 때문이며, 종교개혁이 불붙던 당시 사회상황에 상응하기 위해 '신교'와의 접목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었던 서부 유럽 신교 제 종파(특히 칼비니즘)과 연관된 집단들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신교 교리에서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정신을 인과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두가지 사이에는 하나의 매개변수가 있

으니 그것은 '현세적 금욕주의'라는 윤리관으로 그의 논증은 세가지 변수간의 삼각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 ① 신교 (특히 칼비니즘)의 교리 (종교적 이념)
- ② 현세적 금욕주의 (윤리적 이념)
- ③ 자본주의정신(소명 혹은 직업윤리)

베버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맑스의 자본주의론은 서로 대립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이 두 정신적 거인은 근대 서구문명의 가치와 운명에 대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이 문제제기의 한 관점은, 원래 수단이었다고 또 수단이여야 할 '노동'과 '이윤추구'가 그 자체 목적으로 화한 주객 전도의 체제 하에 우리 근대인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는 이것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퓨리탄들은 <직업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인간>이 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베버는 이 직업인간이 아무런 비전도 가지도 추구하지 않는 감성없는 향락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쇠창살 우리로 경직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베버는 이런 전략이 필연적인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서두에 언급한 바 있는 '합리성'이 해방적 잠재력과 부정적 파괴력 중 어느 것이 역사를 주도할 것인가는 우리 개개인의 가치결단과 이에 바탕한 적극적 실천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 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마치며 ①

유 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며 기다렸던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개강한 6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10주간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종강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강사님들의 뜨거운 열강 속에 진행되었던 이번 학기의 주제는 <경건과 교양>으로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6학기가 시작하기 전, 고전을 다룬다는 홍보물을 접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갖기도 하였으나 교회 성장이나 목회적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아닌 고전 속의 진리를 다루면 동료 목회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여 월요일마다 YMCA 강당을 배움의 열기로 채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개강 2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칸트나 하이데거, 더구나 과학자 호킹 등의 글이 목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철저히 예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전들을 대해 보니 그 가운데서 색다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교시 강의를 하시는 이종윤 목사님께서 한 번의 강의나 설교를 위해 약 20시간을 소요하여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도전을 받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좀 더 좋은 여건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최 규 석 (목사, 독산 큰빛교회)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시간과 돈을 주고 얻은 지식을 남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큰 희생정신이 없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는데 1교시에 진행된 로마서 강해는 그 진수를 맛보게 하고 목회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2교시에 만나뵙는 강사님들은 각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이셔서 쫓아가서 강의를 듣기도 힘든데 모서서 곱고루 강의를 접하게 되니 큰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간 목회자자세미나를 여러 학기 수강하며 동문도 되었고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소견을 적어 봅니다.

첫째,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역자들 중 강원, 경상, 호남, 충청 등 지방의 교역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혜택을 조금 더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2교시 강사 열 분 중 한 분 정도는 외국인이면 어떨까요?

셋째, YMCA 강의실이 조금 좁고 의자도 장시간 공부하기에는 불편하며 교통도 지하철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사치스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섬기는 연구진들에게 더 큰 지혜와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마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경 호 (목사)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를 한 해(두 학기) 동안 참석하고 나서 깨달음과 받은 사랑, 모여든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몇자 적습니다. 충남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면 무언가 이상이 있기 때문이니 자꾸 흔들어 깨워 활동을 유도해야한다고 합니다. 기지개도 켜게 하고, 손발도 움직이게 하고 소리도 내도록 하면 쑥쑥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태만

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목회자와 교회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흔들려 깨우기에 넉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넉넉합니다.

목회자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기 전에는 참석하는 이웃의 목회자들을 통해 테이프나 교안 정도를 전달받고 간접적으로 접해 오다가 직접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갖고 보니 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며 크고 큰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마다 지적인 가르침, 신행일치의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현장을 보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목회자세미나에서 받았던 인사를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진실하게 인사할 수 밖에 없고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물심양면의 사랑을 먹는 점심식사와 간식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 대접하기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통해 ‘없’이 본질회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계시의 장(場)’이

있던 예루살렘(유다)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자유를 구가하던 인간의 일터 헬라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목회자로서의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가 가르침의 본질을 여타의 것과 분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용기도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현실 삶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정신,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수용하고 변혁하는 일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도 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세미나의 진행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큰 것을 배우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거기서 얻는 결실들을 찬송가 355장 3절을 되뇌어 부르며 나의 고백으로 삼게 됩니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11월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제 5차 학습, 세례식을 오는 23일(수) 수요일 I, II부 예배 시에 갖는다. 이를 위한 교육은 21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대학부 총회 개최

대학부는 지난 6일에 정기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95년도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으로 권재형 군이 회장으로, 홍지민양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모집

1995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지원서류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제출 및 문의는 각 찬양대 대장, 교회학교 부장에게 하면된다.

■ 상담문화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와 후원자의 밤 마련 ■

대인관계, 정서장애, 신앙장애, 정신질환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 일반인을 위한 심리치료와 전문 상담을 담당하는 한국 기독교상담문화연구원(원장: 심상권 목사)에서는 오는 29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와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갖는다. 심상권 목사는 소망부를 지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층 부속실에서 성도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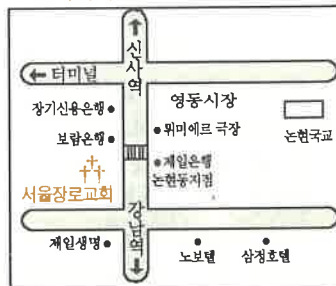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경계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해설 / 박 정 선(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3주년을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2. '94 비전 2000운동의 승전을 감사하며 전도와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3. 입시생들에게 지혜와 평강을 주시사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4.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서울주간기도